

2000년도 제 2차 한-라오스기생충퇴치 사업 현장을 다녀와서

김성대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 방콕을 거쳐 라오스의 비엔티안 공항에 내리니 후덥지근한 날씨에 호흡이 곤란한 지경이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라오스 보건성의 Deputy Director Bounlay PHOMMASACK(블라이 파마삭) 일행중 낯익은 Dr. Boonloth가 다가와 비자와 사진을 챙겨서 입국 절차를 대신해 주었다.

짐을 확인 후 파마삭 일행이 가져온 차량 3대에 분승하여 숙소인 Khaiamphan Guest House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라오스에서 첫 밤을 보냈다.

라오스 2일째, 아침식사를 하면서 사업의 전반적 내용에 관해 토의했다.

이날 아침의 주요 사항은 일행을 3개조로 편성, 조의 물품 편제, 라오스 현지인의 편제, 보건성과의 의료 물품 전달식 등이었다. 임한중 회장님께서서는 검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적다 하시며 당신이 직접 A조에 편제하여 일을 보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A조(Vientian조), B조(Khammouane), C조(Salavan조)를 확정하고 조인식에 참석한 후 조별 검사용 물품을 분류하였다.

우리가 준비하는 물품 목록을 보면 종류가 거의 250여종에 이르며, 항목을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분류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내일 새벽 6시에 사라만조가 출발키로 되어 있다. 약 15시간을 운행해야 한다는데, 새벽 출발과 장시간 여행을 위해 먹을 음료

수와 바게트 빵을 준비하고 잠을 청했다.

13일 아침 5시,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시간에 사라만조의 발걸음이 부산하다. WHO에서 지원되기로 한 차량이 6시 10분쯤 돼야 도착했다. 회장님의 전송을 받으며, 16일 저녁에 이곳에 제집결을 약속하고 출발했다.

이어서 캄문조가 8시에 출발하고, 비엔티안조는 9시에 출발해서 모두가 수도 비엔티안을 벗어났다.

캄문의 도청 소재지인 타켓의 캄문 도립병원에 도착한 우리 조는 검사실로 갔다. 우리 일행을 기다린 사람은 씨타트(Sithat)와 검사실 접수를 담당할 어떤 아가씨 단 둘 뿐. 우리가 머문 4일 중 마지막날인 16일은

제외한 3일간의 병원은 너무 조용하고 한적했다.

일하게 된 검사실 맞은편 병동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이고, 그 옆으로 1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라오스-일본 말라리아 연구소" 등의 독립된 단층으로 된 병동들이 있고, 그 외 5개 정도의 입원 병동이 이 병원을 구성하고 있다.

하루 중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는 약 20여명 정도. 캄문 축제, 정확히 말하면 1년에 한번 있는 Khammouane ship racing festival 인데 이 도시(시타트) 대부분의 사람이 도시의 측면을 흐르는 메콩 강변에 형성된 축제 거리에 모여 있어 정오 시간대엔 서울 명동 거리 이상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성황을 이룬다.

당연히 공공 기관은 필수 요원만 남기고 휴무에 들어간다. 이 병원의 검사 실장은 Dr. Samph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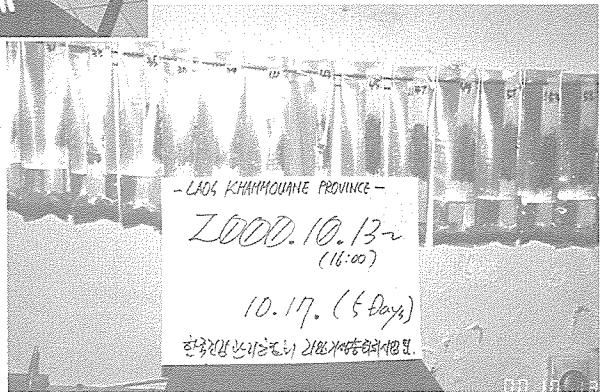
현지인들의 도움이 없는 많은 가검물을 처리할 수가 없다. 특히 분류작업 때 명단과 학교 명을 정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Khammouane 검사 현장에서)





SITHAT 그녀의 도움이 컸다. 나이는 32세 미혼. 밤늦게 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준 라오의 처녀.

▼ H/W 배양 검사. Khammouane에서는 129건의 배양을 실시했다.



Bounsana 인데, 본사나와 그 대부분의 직원-약 6명쯤 되어 보이는 - 은 축제 휴무에 들어간 후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날인 16일 아침이 돼서야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은 검사가 다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검사에 사용된 대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지도 못했다.

현지에 도착한 첫날인 12일, 우리 일행은 간단히 점심을 먹고 한껏 긴장된 맘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올해 5월에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검사의 초반 상황 장악이 중요하며 먼저 조승열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현지 지도에 구(District)별 코드를 부여하고, 검사자 명부를 인계 받아서 각 명부별 district명, school명을 각 개별 명부에 부기한 후 구별, 학교별, 학년별, 반별 지도를 작성하여 명부상의 검사 대상자를 2,020명으로 잠정 산출해 냈다.

실제 검사 건수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지만, 검사 물량이 눈에 들어오니 우리가 일하게 될 3일간의 업무 계획이 자연 그려졌다. 일행은 한정된 일정에 부담을 안고 업무를 마치기 위하여 첫날부터 강행군을 하기로 하고 늦게까지 검사에 들어갔다.

첫날의 검사 실적은 셀로판후충도말검사 약 300건. 둘째 날부터는 셀로판후충도말검사 1,394건, 구충배양검사 120건, 포로말린-이더검사 87건, 요충 핀-테이프 검사를 위한 가검물 채취 및 검사, 기생충의 중간 숙주 물고기 10여종의 채취 및 검사, 기생충 검체를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stool pool제조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 거의 매일 11시가 돼서야 작업이 종료 됐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주어진 일을 마무리 할 수가 없었다. 통계 처리는 숙소에서 다시 해야만 했다.

Khammouane의 마지막날인 16일, 축제 기간 동안 즐기지 못하고 우리 일행과 함께 검사 장정에 끝까지 같이해 준 현지인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Vientian의

카이암판 숙소에 오후 6시쯤 도착하니 다른 2개 팀은 보이지 않았다.

그후로 약 1시간을 더 기다리는 동안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다. 타캣에서도 아침을 제외하곤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최대리는 현지인들을 데리고 식사를 했고, 조승열 교수님과 나는 라면이나 최대리가 사다 주는 빵이나 과일로 점심을 때우고 다시 검사에 들어갔으며, 저녁 또한 그러했다.

밤 11시까지 숙소 로비에서 회장님과 사라반팀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서로가 한번 헤어지면 다시 상면할 때까지 유선 연락을 포기해야 했다.

우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물론, 정부쪽 사람들은 우편망이 가동된다고 말하지만- 전화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일본이 많은 물자를 이곳에 쏟아 부으면서도 기간산업인 통신망에 손을 안대고 있는 것이 다소 의아스러웠다.

17일 오후 1시쯤 돼서야 북부 비엔티안조가 도착했다. 건강한 회장님을 뵈니 캄퐁이 더 멀게 느껴지고 비로소 마음이 안정됨을 느꼈다.

이날 저녁에 주 라오스 한국 대사 관저에서 정화태 대사의 만찬이 있었다. 이날 라오스 보건 관계자인 보건성 차관 분광 피치트(Vice-Minister Bounkouang

PHICHIT) 등 총 4명의 WHO 라오스 지부의 지구장인 Dr. Diodate의 1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회장님 외 8명의 일행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파견된 내과 전문의 1명이 초대되었다. 이 내과 전문의 선생은 라오스에 온지 3년 차로 현지 언어에 능통하며, 가족이 함께 라오스 지역에 거주하는 유일한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다.

이 자리에서 정화태 대사님은 라오스 지역 보건 지수의 열악함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국내 보건 관계자에 대한 각종 물적·인적 자원의 무상 공여를 위해 다각도의 국내 채널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라오 지역 기생충 퇴치 사업에 대하여 임한중 회장님에 대한 감사의 말을 했다.

이어서 보건성 차관 분광 피치트는 부국장 분라이 파마삭의 영어 도움으로 한국의 라오스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자국의 기생충 관리 병원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라오스 지역 기생충 퇴치 사업에 대한 감사와 임한중 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을 표했다.

WHO의 Dr. Diodate는 일본은 무거운 걸 많이 가져다 주는 고마운 국가이고 한국은 아직은 가법지만 라오인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술을 잘 마시는 주법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너스레를 떨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라오스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당연히 일본을 든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상원조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NGO 들이 라오스에 활동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일본의 오부찌 수상이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수많은 무상원조를 약속했고, 특히 JICA(우리 나라의 KOICA에 해당)를 중심으로 라오스 국제 공항 신축, 도로 건설,

버스 기증(약 100대), 시멘트 기증, 의료 장비 기증, 병원 신축 기증, 상하수도 시설, 의사, 간호사 훈련, 부채 탕감, 도서 기증, 학교 신축 기증 등 매년 수 백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공격적으로 행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대 라오스 지원에 대해서 임한중 회장님께서서는 "일본의 공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비금가게 꿈 라오스에 강한 이미지를 심어 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시며, "라오스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생충 검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 라오스 국민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나아가 일본 관련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 사업팀을 고무시켰다. 현재, 일본의 관련 학계 등에서는 이미 "Professor 임"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워하고 있다고 한다.

18일 오전 10시, 라오스 보건성에서, "라오스 초등 학생의 기생충 관리"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라오스 보건성 차관 외 보건성 관계자들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 사업팀이 함께 했고, 우리나라의 정화태 대사님이 배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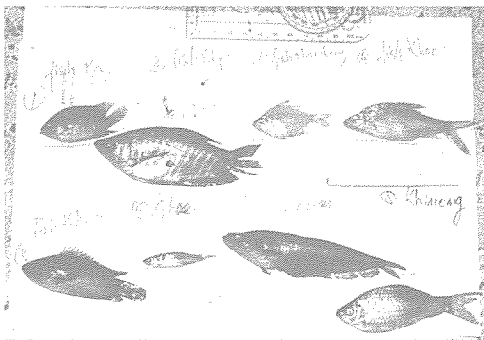
2000년 5월, 라오스에서 1차 사업을 수행한 후 라오스측의 요청에 의해 양해 각서 체결이 추진된 것은 그동안 보건성 관계자들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이 각서의 골자는, 대외적으로 라오스에서 우리 기생충 검사 사업에 대한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과 대내적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8일 저녁은 WHO 라오스 지역장인 Dr. Diodate가 라오스 지역 기생충 검사 사업 관계자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다.

그는 전날에 이어서 이날

▼ Khammouane의 강에서 잡은 물고기들. 이중 Khao라는 물고기에서 Metacercaria가 검출되었다.
▼▼ Chomcheng school 2학년 교실에서 Pin-Tape로 요충란을 채취하고 있다.(Khammouane Province)



도 초청사를 통해 WHO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NGO로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기생충 퇴치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라오스의 보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검진 팀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디오다테의 치사에 대한 회장님의 답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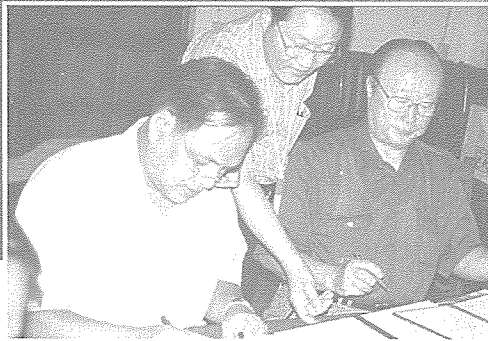
라오스의 마지막 날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무척 바빴다. 오류를 최소화 해야 할 통계 작업과 라오스에 남겨 둘 물품의 목록 작성 및 수량 파악, 그리고 약 30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서 카피 및 결과서 전달 등을 모두 마치고 나니, 라오스의 마지막 밤은 이미 새벽으로 넘어가 있었다.

한편, 회장님과 교수님들은 17일과 18일 만찬을 마치고서도 여전히 Hookworm 배양액을 검정했다. 17일 저녁은 새벽 3시까지 이어지고, 18일 저녁은 새벽 5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이었다.

라오스에서 의 회장님은 결코 지시와 감독만 하는 분이 아니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검정 작업을 자정이 넘도록 하셨다. 쉴 틈 없이 일을 하시니 젊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낳게 하는 일이었고, 부단히 뛰가 다음 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 결과적으로 현업 업무의 완성도를 올리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세계의 건강 오지, 어떤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라오스에 기생충 관리 사업을 전개해서 한국인으로서 세계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회장님을 보면서 동남아의 슈바이처라는 생각을 했다.

아울러 라오스에서 우리 사업이 일본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소프트적 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이 발전해 가면서 점차 높아질 것을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라오스 보건 관계자의 협조적 분위기 조성, 한국국제협력단 등 정부 지원 강화, 한국건강관리협회 자체 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 양성 등의 과제가



▲▲라오스 보건원에서 있었던 증거서 조인식. (좌로부터 블라이- 파마삭, 황인수 국장, 회장님)
▲ 양해각서 조인 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자원의 집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요 자원, 인력의 확보, 우호적 협력자 존재 등이 내외적으로 갖춰져야 하며, 고전적인 NGO 협력 사업의 문제점인 재정적 독립성, 전문성 부족,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와 NGO와의 역할 분담의 어려움, NGO자체 비판 부족 등에 대한 사안별 대응 방안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국내 학계의 동향과 평가 또한 중요한데, 과거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고유 기생충을 연구함으로써 그 국소성 때문에 주목받던 연구 단계에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기생충을 연구하고 각 나라의 일류 연구팀과 경쟁하는 시대로 들어서 있는

기생충 학계의 변화와 부합되는 사업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오인들의 다른 보건 지표를 보면, 평균수명 51세, 유아 사망률 14.2%이고, 의료 시설로는 인구 1,510명당 의사 1인, 633명당 병상 1개이다. 국민의 95%가 요드결핍, 75%가 비위생적 생활, 60%가 안전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며, 47%가 만성적 영양 부족 상태이며,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으로 질병 발병율이 높으며, 낙후된 의료 수준 및 시설로 인해 응급 환자 발생 시 태국으로 후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보건 상태에 대해서 초연한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라오스 지역 기생충 퇴치 사업은 범 지구인으로서 인도주의의 실천이며, 국위를 선양하는 첩병이며, 한국인의 인본주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역사적 발걸음이다.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이 족적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게 될 날을 생각하며,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과 준비된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서울 김포공항에 발을 내렸다.

72